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中等教育調査委員會에 囑함

一

明年度부터 始作되는 初等教育擴充十個年計劃에 伴한 中等教育調査委員會는 지난 十日로부터 開催되엇다。現在에도 中等教育機關이 不足하야 學年初에는 入學難의 悲劇을 演出하는 形便인데 今後 十年間에 現在 初等學校兒童數에 相等한 七十萬의 兒童이 增加되면 一層 入學難이 甚할것이므로 이에 相應한 數交와 學校를 擴充할 計劃으로 調査委員會가 開催됨은 當然한 順序다。그러나 이 緊急한 情勢下에서 果然 當局이 이에 相應한 擴充計劃을 樹立할가 하는것은 매우 注目되는바이니 이에는 必要한 數交의 學校와 必要한 種類의 學校를 當局이 잘 認識하얏는가 疑問되므로써다。

二

첫재 必要한 數交의 學校라함은 現在 學校數에 對한 當局의 認識이 不足한것이다。누구나 다 經驗하는바와가티 每年 學年初에는 中等學校의 入學難으로 因하야 父母의 自殺、落第生의 出家等 一大社會問題를 이르키건만 當局은 오히려 이것을 重大視안코 或은 等閑視하고 現在以上의 增設을 생각치 안는다。이것은 現在 高等普通學校가 十一(今年開校한 安州高普는 除外)임에 不拘하고 大正十一年 京城高普의 設立을 最終으로 爾來 高普를 增設치 안흠을 보아 斟酌할수잇다。이리하야 當局은 今後十年間에 現在數交의 學校增設도 생각치 안는 모양이다。

三

둘재 學校의 種類인바 現下 朝鮮에 實業學校에 比하야 高等普通學校가 얼마나 적은가는 實業學校 六十四에 對하야 高普(男女私立)四十五임을 보아 想像할수잇다。그러나 當局은 今後 學校의 增設은 생각하되 高普보다도 實業學校에 重點을 置할意思를 가진것이다。이것은 第二回의 委員會에서 實業學校 擴充을 强調하고 從來 當局이 民間에서 私立高普期成會가 생기드래도 될수잇는대로 實業學校로 轉換할것을 慫慂한것으로 보아 斟酌할수잇다。

四

當局의 이 學校數交及 學校種類에 對한 認識이 如何히 錯誤되엇는가는 다시 말할 餘地가 업지만 吾人은 極히 平凡한 論理로써 當局의 誤謬를 指摘하랴 한다。

첫재 現下 朝鮮의 中等學校數交問題니 當局은 京城各學校의 志願者에 對한 入學率의 적은 것을 一人의 多數學校志願에 돌리나 設使 一人이 二三學校를 志願햇다 하드래도 二十對一의 學校도 잇스니 적어도 三四倍의 志願者가 잇는것이 아닌가。또 地方學生이 京城에 多數 集來한다는것을 理由로 삼으나 地方學校에도 三四倍 乃至 近十倍의 志願者가 잇는것을 보지안는가。그럼으로 志願者가 現在 收容人員의 數三倍以上되는것은 確實한 事實이다。

그런즉 今後 十年을 期하야 初等學校兒童 七十萬을 增加시킨다면 高普四十五、實業六十四의 增設로도 不足하다。況 高普의 一道二校主義도 쓰지안코 私立高普도 增設을 擬留하라는 形便이라。

五

高普를 增設치말고 私立高普의 設立까지 拒留하는 當局의 態度는 더욱 不可解하다。우리는 實業教育을 反對치안는다。그러나 學校教育을 全然實業教育化함에는 反對치 안흘수업다。學校는 여러가지 方面에 됴하야 人材를 養成함이 目的이다。初等의 技術만 가르치을 目的하는 中等實業學校만 設立하면 그社會에는 學者도 업고、高尚한 技師도 못나며、相當한 實業家도 못나고다。이 跛行한 人物만을 가진社會에 幸福과 平和가 잇을것이며 向上과 發展이 잇을것인가。初等、中等、實業、師範、專門、大學의 調和한 教育이 完全한 社會를 建設할것이다。

六

그러므로 中等教育調査委員會는 오즉 現狀을 擴張하라는 計劃을 세울것이 아니라 中等教育의 百年大計로 보아 當然히 해나갈 方針을 樹立할것이니 ... 그러므로 今後十年에 高普는 現在의 三倍乃至 五倍로하되 民間의 私立高普設立에는 積極的 援助를 惜치지며 實業學校도 現在의 三倍乃至五倍가량으로 세우되 이것도 되도록 私立으로 하는것을 獎勵할것이다。따라 專門學校의 增設、大學學科及 收容人員의 增加도 當然히 準備치 아니치 못할것이다。敢히 中等教育調査委員會諸氏의 一考를 望하는바이다。

西班牙의動亂 遂國際問題化

西班牙政府當局서 英佛의援助要請

佛首相은反팟쇼立場에서援助?

英國側은拒否方針

【巴里二十四日發同盟】西班牙政府는 叛亂軍의 鎭壓에 直面하야 마츰내 佛國政府의 援助를 要請하기로 決定하고 前閣僚 사요스氏를 特使로 派遣하엿다 右特使는 블룸佛首相이 倫敦으로부터 歸國함을 기다려 面會하고 西班牙政府의 窮狀을 說하야

一、軍用機 其他軍需品讓渡

一、모록코植民地의 軍事的協力을 懇請할 豫定인데 블룸首相은 西班牙人民戰線內閣崩壞의 結果 팟쇼政權이 樹立되면 結局 히틀러와 뭇솔리니의 盟友가 이베리아半島에 出現하게될것을 念慮하고 어떠한方法으로 西班牙政府를 援助하고십다는 意向이라고 解釋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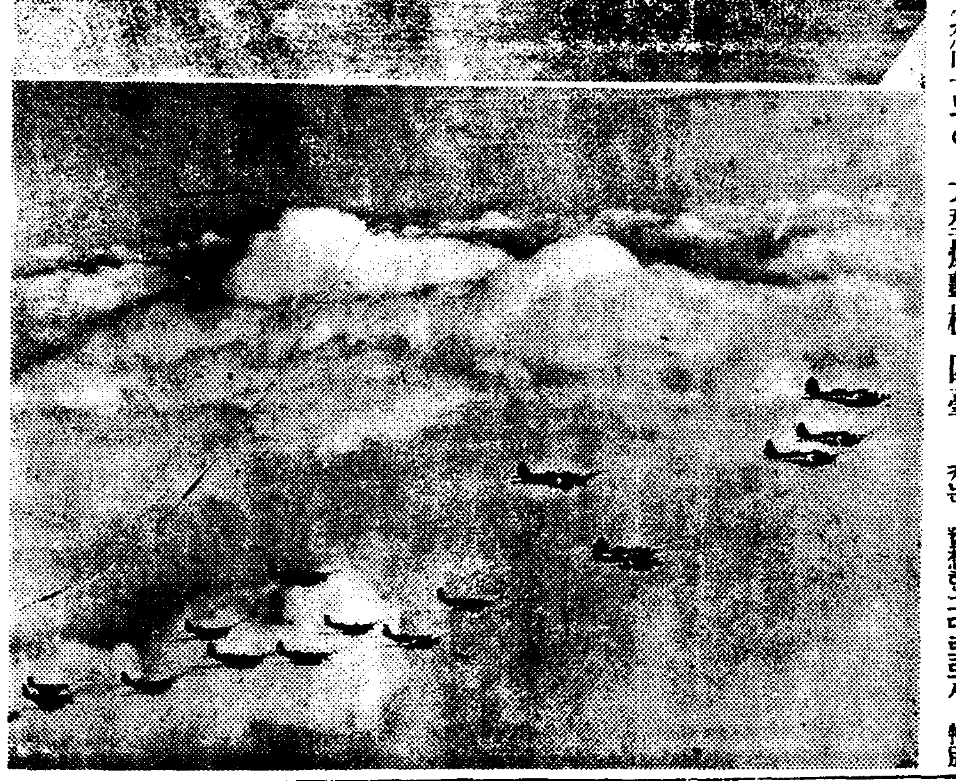
但 佛國政府는 地中海에서 特殊關係를가진 英國政府가 難色을示할 境遇에는 或은 그援助를 斷念할는지도 모른다

【巴里二十四日發同盟】西班牙政府는 內亂鎭定에 關하야 英佛兩國政府의 援助를 要請하엿기 때문에 內亂은 方今 國際問題化하게되엇다 英國政府는 西班牙政府의 要請에對하야 自國과特殊關係가잇는 葡萄牙에 波及하야 政變이 起할것을 念慮하고 不干涉의 立場을堅持하고 西班牙政府의 援助를 拒否하엿다고解釋되다 一方 佛國政府는 左翼戰線으로서의 共同的立場에서 相當히 支援에기운모양이나 英伊兩國政府를 念慮하야 容易히決斷할수업스리라고 보이는데 伊大利政府는 地中海上의 情勢에 關하야 佛西兩國政府의 折衝을 重視하고 이미 英國政府와 協議中이라고한다

大型爆擊機四臺 마드리드로派遣

佛首相空軍出動受諾

【巴里廿四日發同盟】블룸佛首相은 西班牙政府의 要請을 受諾하고 空軍을 出動하야 叛亂軍鎭壓에 援助하기로되어 大型爆擊機 四臺를 即時 마드리드에 派遣하기로 決定하얏다고 傳한다



蒼空의脅威 ― 未來戰爭은 實로 空軍의 勢力如何로 左右된다는것은 常識이되엿다。이러한形勢는 各列强의 制空權競爭으로써 나타난다。蒼空에서 蒼空에增大되는 戰爭의 脅威는 나날이 吾人의 眼前에 可驚할狀態를 展開식힌다。寫眞上은 英京倫敦市外헨든 飛行場에서行한 英陸海軍航空대ㅣ에 參加한各種飛行機의 寫眞下는 雲海中을 飛翔中의 米國第二十一陸軍爆擊隊

西歐平和再建에는 獨伊參加가 絕對로必要

但、地中海相互援助條約廢止안하면不參加

로會議와伊政府見解

【羅馬廿四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로카르노 豫備會議에 關聯하야 廿三日夜 如左한見解를表明하엿다

로카르노 豫備會議의 콤뮤니케는 豫想한그대로로서 特別히 批評할것은 업다 西歐의 平和를 再律함에는 獨伊兩國의 參加가 絕對必要한것은 今回의 會議에서 充分 諒解되엇다고 잇는다 그러나 伊太利自身으로서는 地中海의 相互援助條約이 廢止되지안는限 五個國會議의 招請에 應諾할수는업다

獨伊兩國에 로會議參加招請

【倫敦二十三日發同盟】英佛白三國政府는 로카르노豫備會議終了後 會議의 決定에 基하야 即時 獨伊兩國駐箚各大使에게 訓電을 發하야 會議의 共同콤뮤니케를 通告하는同時에 브랏셀에서 開催될 五個國會議參加를 招請하도록 命令하엿다

佛西人民戰線內閣의 協助確立을注視

伊政府、地中海上의變調를念慮

【羅馬二十三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西班牙內亂의 推移를 注視하고 地中海及 阿弗利加大陸의 情勢에 如何한 影響을 與하는가를 監視中인데 佛西兩國의 人民戰線內閣間에 連帶共助關係가 確立될 境遇에는 地中海上의 勢力에 變調를 招來할 憂慮가잇다고 看做하고 매우 念慮하야 倫敦駐箚外交機關을 通하야 英國政府와 折衝하며 그 對策에 關하야 意見을 交換하엿다고 報道되다

在西英大使連絡斷絕

【倫敦二十四日發同盟】英國外務省은 西班牙國內情勢를 重視하고 마드리드駐箚大使 칠튼氏와 緊密히 連絡하고잇는데 數日間 同大使의 聯絡이 全然 끈너젓슴으로 大使館及 居留民의 安否가 憂慮되다

西政府內亂情況發表

【마드리드廿三日發同盟】西班牙政府는 廿三日 內亂情況에 關하야 如左히 發表하엿다

바르셀로나에서 叛軍은 死者 二百三十五名 負傷者六百十九名을 내엇다 메리라에서는 目下 叛軍과 政府軍間에 戰鬪가 繼續되고잇는데 同地方에서는 食糧이 缺乏하게되엇다 政府軍은 二十三日 콜도바에 入城하엿다 또 政府軍 六千은 사라고사로 向하야 進擊中이다 마드리드附近의 叛亂軍에 一萬一千의 兵力을 配置하고 叛軍侵入에 備하고잇다

虐殺到處에展開 阿鼻叫喚의慘狀

首都의左翼派・팟쇼團員을逮捕射殺

情報區區로眞相不明

【倫敦二十四日發同盟】西班牙內亂의 現狀은 情報가 區區하야 眞相을 捕捉할수업는데 虐殺은 各處에서 展開되어 國內는 가는곳마다 目不忍見의 慘狀을 呈하고잇다고한다 마드리드駐剳 各國大使館의 公電에 依하면 마드리드市內는 右翼分子를 大量檢擧하고 左翼의 過激派는 市內의 右翼、팟쇼團員을 맛나는대로 逮捕射殺하고잇서 市內某場所에서는 靑年팟쇼團員百餘名이 慘屍가되어 橫臥하야 機關銃의 彈痕으로 참아볼수업는形狀이라고한다

英驅逐艦附近投彈 叛亂將軍에嚴重抗議

【지브랄타二十三日發同盟】二十三日 西班牙最南端의 타리파港 沖에서 叛亂軍의 飛行機가 投下한 爆彈이 英國驅逐艦 와일드스카號附近에 落下하얏스므로 同艦은 飛行機에 對하야 警告的 發砲를 行하얏다 이外에 叛亂軍의 飛行機는 지브랄타港海峽附近에 不法爆擊을 行하여 英國軍艦 英國居留民에 危險을及하고잇스므로 二十三日 지브랄타 要塞司令官은 叛亂軍總司令 프랑코將軍에게 嚴重抗議를提出하고 萬若이것을中止하지안는境遇에는 英國은實力을行使하야 克服手段을 取하겟다는고 警告를發하엿다

바르셀로나市 建物無慘히破壞

【마르세이유二十四日發同盟】二十三日 마르세이유에 入港한 佛國汽船乘客의 談에 依하면 바르셀로나市는 政府軍과 叛亂軍의 戰鬪에 依하야 市街의 建物은 無慘히 破壞되고 街上에는 死屍가 이곳저곳에 橫行하야 잇다 그러나 方今 政府軍의손으로 秩序는 完全히 維持되게 되엇다

三相會議

中國問題意見交換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二十四日의 定例閣議散會後 廣田首相、有田外相、寺內陸相、永野海相의 三相會議를 開하고 먼저 有田外相이 最近의 中國問題에 關하야 報告하고 寺內陸相、永野海相도 西南派와 南京政府와의 關係、北支經濟其他에 關하야 意見을 交換하고 同十一時半 散會하엿다

軍事調查部廢止

陸軍官制의改正骨子

【東京電話同盟】陸軍省唯一의 官制外機關인 軍事調查部(新聞班及調查班으로構成)은 今回官制改正에依하야 廢止되고 新聞班만이 從來대로 官制外機關으로 軍務局內에 併置되게되엿다 右는 軍事課및軍務課와 密接한 關係를 가진 調查班의 業務가 他局課에서 適宜分擔할수잇슴과 新聞班의 業務는 軍務課의 國防政策等을 普及하는 關係有한結果 從來대로 軍務局에在한 軍事課와 軍事調查部에 잇는 新聞班과의 關係와 如히 分離된立場에 두지안코 此際 一元化함을 便宜하다고 認定한結果이다 또 新聞班이 創設된것은 西伯利亞事變當時의 大正八年으로 初代班長은 畑俊六中將이오 昭和三年四月 調查班이 創設됨에따라 이것과 新聞班을 合하야 調查委員會를 設置하야 初代委員長에 故井染祿郎中將을 任命하고 다음 同八年十一月 軍事調查部라고 改稱하야 今日에 이르른것이다

陸軍官制改正骨子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 陸軍中央部의 官制改正을 企圖하고 여러달부터 研究立案中이든바 最近成案되엇슴으로 二十四日閣議決定 上奏御裁可를 經하야 陸軍省에서 發表되엇는데 그 根本은 時代의 趨勢에 合致되도록 諸部局의 改正을 함에잇고 軍務局과 兵務局의 二局에 分割되여 그 結果 陸軍省의 七局制度가 八局制度가됨

一、新軍務局은 軍事課 軍務課와 新聞班(現制)으로 構成되고 兵務局은 現制의 軍務局의 軍事課와 徵募課를 除한 各部門으로서 構成함

一、各部門 各局課에 關係하는 人事는 全部 人事局에 統合함 또 敎育人退營等을 管掌하는 現制 軍務局의 徵募課도 人事局에 移함

一、人事를 除한 航空關係事項(陸軍省의 器材關係도 包含)을 다 航空本部에 移함 等이다

國府軍政界要人 續續廬山에集合

西南問題解決의餘勢를모라

對內對日諸問題協議

【上海二十四日發同盟】西南問題解決에 豫想以上의 成功을한 蔣介石氏는 다시 그餘勢를 모라 國府의 軍政界全要人을 廬山에 招集하야 二中全會에서 決定한 國防會議開催名目下에 國府今後의 對外對內 諸方策을 協議키로되여 行政院 各部長을 爲始하야 軍政各方面의 要人及 宋子文氏 以下 浙江省財系 要人은 前後하야 續續 廬山에集合하고 잇는데 蔣介石氏로서는 今回의 西南問題解決로 中央의 統制力에 自信을 어덧스므로 國防會議開催를 機會로 徹底的으로 그獨裁的 政權確立을 期하고 이目的으로 全國 政權 軍權에 完全한 中央統制와 十一月十二日부터 開催되는 國民大會의 承認을어더 發布될憲法草案의 實成을 어드려는것이라고한다 卽今回의 國防會議內容은 右와 如히 對外問題로보아도 차라리蔣政府의 確立을 主眼으로한 對內問題에 잇는것이며 國防會議에서는 馮玉祥其外抗日將領으로부터 政府의 『抗日決意』『對日戰備의具體案』等에對하야 提案하야 政府의 對策을어드려 追及할것은 當然하고 이에對하야 蔣介石氏는 國防의充實을 强調하야 急激한 抗日決意表示等은 避할것인데 會議의推移如何로는 對日關係意志表示를 避치못할것이라하야 川越大使와 經濟提携策으로 모지리軌道에올은 兩國關係調整은 中國側의 右와如한 情勢를 反映하야 或은 再逆轉할念慮가잇서 現地官憲은 深甚한 注意로서 會議의推移를 注視하고잇다

冀察政權中央化 國府積極的進出

【北平二十三日發同盟】國民政府의 冀察政權中央化工作은 西南派의 拒絕로一層拍車를 加하엿는데 中央側이 企圖하는바는

一、冀察政務委員會의 改組와諸規定의 根本的改正에依하야 地方自治體의 色彩를 稀薄하게하야 中央의承認이업시 行動할수업도록 拘束할것

一、冀察政權을 第二十九軍이擁斷하도록 速히 常置委員會를復活시켜 王克敏氏一派로 하여금 이를支配케할것

一、來十一月의 國民大會에 冀察政權側으로부터도 法定數의 代表者를 出席케하야 冀察政權으로하여금 新憲法의 統制下에 歸하게하려는것이다 以上의 三項은 이미國民政府가 積極的으로 工作에 着手한것인데 모다 冀察政權으로서는 容易히 同意할수업는것으로 目下 冀察政權의 一部에는 南京派 反蔣派 親日派 反日派의 各派가 亂立하야 事實複雜性을 增大하고잇다

蕭氏를總參議로 王克敏氏에拮抗

冀察內部情勢複雜化

【北平廿三日發同盟】王克敏氏의 北上으로 冀察政權內部의 情勢는 자못 複雜化하여 第二十九軍中의 反蔣系分子는 王氏의北上으로써 南京政府의 冀察政權奪取策이라고 이에 拮抗하기爲하야 前天津市長으로 現在 萬壽山에 靜退中인 蕭振瀛氏의 再出馬를 促하야 勢力復活을 圖하려는中이다 即 蕭氏에게 冀察政務委員會總參議의 新地位를 與하야 事實上 副委員長이되게하고 湯爾和、曹汝霖、關作民氏等의 王克敏支持派에 對抗하려는것으로 南派의 對立은 想像以上으로 深刻한바가잇다

時事漫畫 몬트루市에서 겨우 燕尾服한紳士를 어더입은 平和君海峽을 지나다가 『이거 내그림자가 이게웬일인가?』

農振課新設에따러 農林各課配合改革

今年度豫算으로서 新設될 農村振興課에 關해서는 農林局에서 事務分掌規定의 改正을 研究中인데 事務連絡其他諸種의 關係로 農振課는 同局內에 新設할 意向이다 그런데 農林局은 現在에도 農政、農産、土地改良、水利、林政、林業의 六課를 包轄하엿는데 이우에 農振課를 新設할境遇에는 자못事務가 煩雜을 極할憂慮가잇스므로 此際에 同局事務分掌을 根本的으로 各課配合과함께 斷行하고 農振課新設하야 農務課로하는同時에 米穀事務를 專掌할 米穀課를 新設할모양으로 結局 農林局은 農政、農産、兩課를 廢하고 農務、米穀、農振、三課가 新設되어 現在의 六課가 七課가되게될것으로보인다

地方財政調整次 交附金創定乎

今年度부터 實施한 地方稅制整理의結果로 全朝鮮各道別의 地方財政狀況을 보건대 其他의擔稅力相違로 例컨대 西北朝鮮六道와가튼데는 地方財政의 收入은 從前의地方行政機構를 維持하기에 足치아니한 不均等을 示하는一面 京畿、慶南、全北과가튼곳은 이餘裕增大의 傾向에잇서서 地方財政의調整은 重要한財政問題가 되엇더바 十二年度豫算부터 總督府에서는 情勢에鑑하야 地方財政交付金制度를 創定하기로 方針을決定하엿다 그런데 이는 增稅問題에도 關聯하나 今井田政務總監은 增稅實施與否에 不拘코 實施에 着手할意向을 表明하엿다 또十一年度의 地方財政不均衡에 關해서는 諸補助金의 適宜調整으로 커버하기로內定하엿다

夕刊後市況 廿四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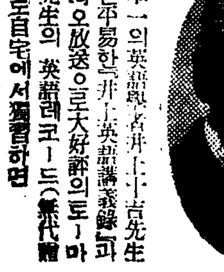
◆大阪 短期 新記◆
大新 六八四〇 (不變)
鐘新 一五七九〇 (不變)
日産 七七一〇 (一〇高)
東新 一二四〇〇 (一〇高)

◆橫濱 生系 後引◆
當限 七一九〇〇 先限 七一六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一六〇 先限 五九三〇

今年小學卒業生諸君
自宅에서中學을 卒業하시라!!

全國靑少年諸君! 家庭의事情으로 中學에 못가는것을 가엽게 녀일必要는업다 文部次官、衆議院議員等 博士가 會長인 有名한
國民中學講義錄
으로 自宅에서 獨習하면、겨우 一年이면 中學全科를 完全히 習得할수잇다。
昨年末文部省에서 調査한데 依하면 三井、三菱、安田等 大銀行、大會社의 課長級 八百七十名中에서 學歷은 小學校뿐이고 다음은 獨學으로 中學卒業以上의 學力을 獲得한분들이 四百五十名이라고한다 今後는 더욱 實力時代다。더욱히 貴重한 時間과 費用과를 節約함에는 信用잇는 講義錄을 보는以上 더업다。
每月三百頁以上의講義錄과 雜誌、그리고 굉장한 附錄까지 每月 보시게된다
詳細는 東京麴町富士見町三ノ廿二 國民中等教育會에 (中學見本送れ)라고申込하면 見本을無料로送呈함。
國民中等教育會

新學期開講・新入學生募集
井上英語講義錄
눈과 귀로부터 英語를
ABCの讀み方より
靑少年諸君! 初夏은 立身의武器 英語를征服하라! 石手쟁이아들로 總理大臣이되는 實力의世上인즉、더욱히 「英語」를 아는것이야말로、立身의 第一階段이다。

我國英學界의父 井上十吉先生
日本一의英語學者井上十吉先生이쓴平易한『井上英語講義錄』과 라듸오放送으로大好評의 「도-마스先生의 英語레코-드」(無代贈呈)로自宅에서獨習하면
一個月에英語가읽게되고
二個月에英語자쓰게되고
三個月에英語로對話되고
어가르굉장한能手가되다。

文學科大學教授 도-마스先生
予先、內容見本을一覽하신다음 이春季新學期부터本校十七萬의 學友에參加하시라。
講義錄月二回 雜誌一回 配布 레코-드 外九 大附錄 贈呈 月謝一圓 廿錄三個月마다進呈
內容見本進呈
(申込所)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三丁目十九番地 井上通信英語學校 振替東京三〇二八
葉書로「見本送れ」라고記入申込次第 七十頁以上의 見本을送呈함

日本ペン習字
文部省囑託 國定教科書揮毫者 井上千圃先生指導
實業界でも官界でもいよいよペン字の時代です。我國ペン書道の第一人者の有名な肉筆本位の教授法で一ケ月だけでも習って下さい。上達保證致します。

作品付き・內容見本進呈
東京麴町區富士見町三ノ五 日本ペン習字研究會

旱災地、黃海道에 苦待튼 千金雨!
二十四日曉부터 各地에 均霑
一般農家는 愁眉半開

【海州支局電話】 제긔의 한발로 이미 황천여정보다 이앙을 못하엿슬뿐아니라 이미 이앙을 필하엿든 곳중에도 일만여정보의 수전이 마답이 될지경이엇스며 그여에 이앙을 못하엿든 곳에 대신심엇든 일만육천여정보의 모밀과 피도 말러간다고하야 이번 한발피해지중 가장심하엿든 황해도에는 이십사일새벽세시경부터 비가내리기 시작하야 오전열시까지의 보고에의하면 금천(金川)에 이십 미리를 비롯하여 도내각지에 십여미리식 내리엇고 아직 계속하여 내리는비는 하로스동안 충분히 내릴듯하다함으로 그동안 가물에 말러라고잇든 모든곡식은 이제단비에 저저 일시에 청청한생긔를 띄우게되여 농민들은 물론 도농무과에서도 크게 한재가 회복되리라고 깃버하고잇다 오전 십시현재 도내각군의 우량은 다음과갓다

海州	二〇、六	平山	二三、六
金川	二六、〇	長淵	一五、〇
松禾	六、〇	瑞興	一六、〇
遂安	一六、〇	甕津	一五、九
信川	一〇、〇	載寧	七、五
安岳	六、〇	谷山	一六、〇
新溪	一三、〇	殷栗	一四、〇
黃州	六、〇		

平北警察課俄然緊張
熙、寧兩郡서 活動
內容은普天敎事件과赤色秘社事件
今後도 擴大될形勢

【新義州】 평북도고등과(高等課)에서는 수일전부터 무슨 단서를 잡아가지고 암암리에 활동중이든바 이십일일 동과 말영(末永)경부와 백뢰(百瀨)경부보 등 두명은 각각 형사한명 또는 두명을 대동하고 두반으로 나누어 평북희천(熙川)과 녕변(寧邊)방면으로 급행하얏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 의하면

희천사건은 전북(全北)에서 검거하기 시작하야 전조선적으로 대검거선풍이 이러난 보천교(普天敎)사건으로 희천에 근거를둔 전과 보천교도가 동교의 재흥을도모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는데 자세한 내용은 출동대가 도라오지안흐면 알수업슬 것이나 하여간 사건은 확대할 모양이라한다

녕변사건은 경북(慶北)모체와 련락이잇는 적색 비밀결사(赤色秘密結社)사건으로 전과녕변에 지부형식으로 근거를두고 모종의 계획을 획책한 사건이라는데 전조선적으로 사건은점차확대될 모양이라한다

海州傷人强盜
兩名에重刑言渡

【海州支局特電】 해주서부림대를 횡행하든 상인강도범 김추선(金秋善)(二七) 최흥조(崔興兆)(二〇)의 두명에관한 판결공판은 이십사일해주지방법원에서 열리어 상량(相良)재판장관여하에 석천(石川)판사로부터 김추선에게는 징역십년 최흥조에게는 징역십년을언도하엿다

死刑囚遺骸
故鄕에運搬

이십이일 사형집행이잇단 간도공산당사건관계자 김광묵(金光默) 지련홍(池蓮洪)등 두명의유족들은사형집행하엿다는말을듯고 곳시체를 차즈려 멀리 함북경성(鏡城)으로부터 상경하야 방금 부내견지정(堅志町)오십오번지 삼광(三光)의원에 머므러잇는중인데 그들은 유해를 전과 고향으로 운반할 예정이라고한다 주현갑(周現甲) 리동선(李東鮮)등 가족도 유해를차즈려 오겟다는 전보가와잇다 한다

出奔女搜索願

경긔도리천군마장면오천리(京畿道利川郡麻長面午川里)리덕수(李德壽)(一七)는 이십사일아침 자긔 마누라를 차저달라고 본정서에

時期尙早論을 抛棄
勞働立法資料收集
明年度에 調査費要求

조선광업의 발달에 따라서 공장법(工場法)기타 로동립법요망의 소리가 점차로 노파지고잇다 파산로동자에 대해서는 부녀자의 입항금지(入坑禁止)소년 및 부녀자로동자의 심야업금지(深夜業禁止)및 최장로동시간의 한정등 각종로동제한 규정을제정함으로 관계당국의손에서 심의를 진행하고잇다 공장로동자에 대해서는 현재에 잇서서는 아모 규정이 업슬뿐만 아니라 일부에는 시긔가 아즉 일다는 소리까지 잇는데 로동자의 적절한 보호지도정책은 도리혀 산업의 발달을 촉진하는 측면공작이라는적극론도 잇다 총독부당국의 의향도 대개 그리로 기우러지는 모양인데 조선로동립법은 그완전불완전은 딴문제로하고 조만간 실현될것으로 긔대된다 일방경무국에서는 보안경찰의 처지로 명년도예산에 조선안로동사비 약간을 요구하기로 되엿다 즉 로동립법자료 수집을하기 위함인듯하다 이리저리 련하야 조선에 적합한 각종로동립법조사등은 그리 멀지안흘것으로 보인다

潰滅하는 普天敎
幹部廿五名邪敎生活을淸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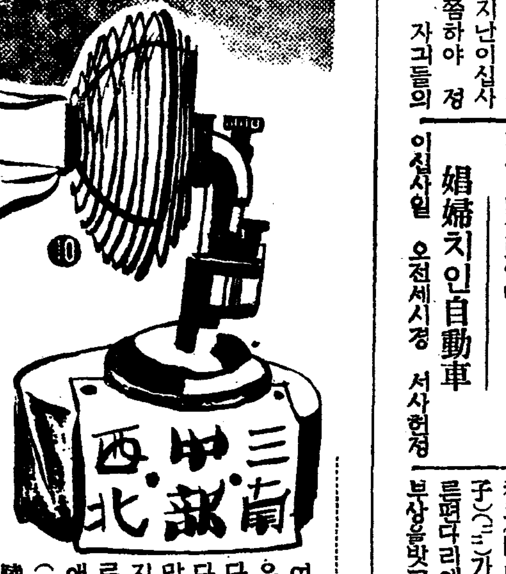
【井邑支局特電】 전북정읍군립암면대앙동(井邑郡笠岩面大央洞)에잇는 보천교(普天敎)중앙간부확십방주(方主)중 중앙총령원장(中央總領院長)권약재(權若齋)와 중앙외교원장(外交院長)리병철(李炳哲)등 이십오명은 지난이십일 오전열두시삼십분쯤하야 정읍경찰서에 나타나서 자긔들의 과거의 사교(邪敎)생활을 청산할것을 언명하는동시에 이십오명은 전부 머리를깍겟다고 말하엿다한다 이리하야 문제만튼 보천교도 드듸여 최후의몰락의 길을 밟게되엿다

鷄盜

경북경주읍 황남리(慶北慶州邑皇南里)출생의 김일수(金日守)(二〇)은 수일전부터본정서에 인치되여 절도혐의로취조중이라한다 그는현재미체포의 경북군위군 효령면내리리(慶北軍威郡孝令面內里里)출생의김경복(金慶福)(二三)이와 공모하야 지난칠월 십구일밤 십이시경 궁부보태(宮部保太)의 양계장에서 일본닭 열한마리를 절도한것을 비롯하야 시내각처로도라다니면서 아홉군데에서 약오백마리의 닭을절도하야 홍치여 시내 남대문통(南大門通)사정목사번지 계란장사하는 김종완(金鍾完)외 여러사람에게 파라서 우홍에 소비하엿다한다

娼婦치인自動車

이십사일 오전세시경 서사헌정(西四軒町)일정목 백팔십번지압길에서 사간정(司諫町)구십이번지 심명진(沈明鎭)(三)이 운전하는 경긔五七백이십팔호자동차에 서사헌정백팔십번지 광창루(廣昌樓)창기 오춘자(吳春子)(三)가 다치여 아래복부와 오른편다리에 약일주일간 치료의 부상을 밧고 부민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원인은 운전수의 과실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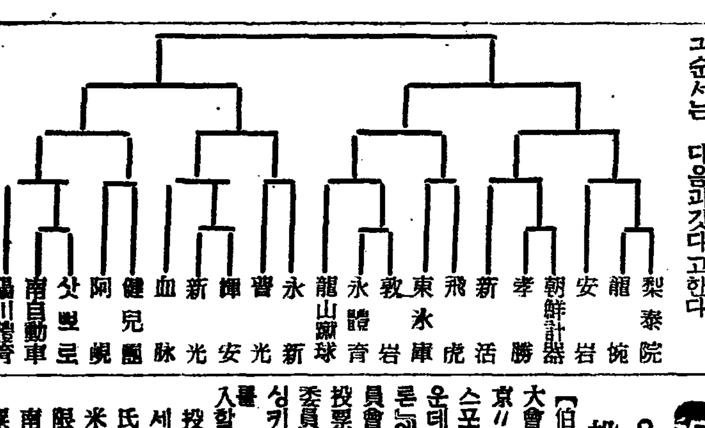


三南出題―鬱陵島
三南(慶尙・全羅・忠淸六道) 中部(京畿・江原・黃海道) 西北(平安・黃海・咸鏡五道)

여름에 시원한 곳은무어슨무어해도 바다이겟든 바다이면 다바다일랴。구색이 맛고 삼등이 가춰야 징어기는 동해바다로 멀리떠러저 천애(天涯)의 고도(孤島) 울릉도(鬱陵島)。향나무 욱어진 그늘아래 한가히조으는 황소암송 홍마뢰(紅馬腦)가튼 동백열매를 노래속에서 따는 섬처녀。내리까기진 절벽아래 파래김 따는 안악네。호수가튼 포구안에서 오적어(烏賊魚)낙는 낙시배。모래넘어치는 휘발한소리를 쪼끼며 그물질하는 고깃배。휘파람소리도 처량하게 인어떼가튼 해녀들。머리만드러낸 종석(鐘石)을 발도듬으로 쫑긋가리 펴지는 물새들。서양해풍에 바다의 경기병(輕騎兵)날치(飛魚)들의 "하이쩔루"。산이고 들이고간에 개곱이고 도롯(蘚苔)명수가업는 별천지。여름밤 풀숲헤 그대로 누어도 모전(毛氈)보다나흔잔디밧。사방팔방은 한울과 물바람이란 바람은 다모히는 도화정。사람은순하고 자연은 명랑。무릉도원(武陵桃源)은 동두강대륙의 띄끌과는 인연을잘끈허서 신화(神話)에 서나자흘 바다의동떤。정어리기름에 서린연기에 그을대로 그을른 색가마케된 대륙의 해안을、철면피준비를 안해거든 함부로 수작도 부치지마렴다。

廿五日開幕될 纖湖蹴球大會
空前의大盛況을豫期

【永登浦】 과부로―영등포체육회주최와조선일보영등포지국후원하에 개최되는 제삼회과호축구대회는 이십이일 삿뽀로맥주회사 조선과게회사 룡산추구 기타 참가단체 이십일팀으로 마감한후 이십삼일 오후오시 조선일보영등포지국에서 각주장회의하에 추첨을 행하고 금이십오일정오부터 영등포 방학정(永登浦放鶴亭)추태지에서 개막되어 삽배건아의 육탄전은 자못 장관을 예측하는터인데 금번 대회는 두번이나 연승한 남대문자동차학교(南大門自動車學校)에대한 설욕전이만큼 일층이 보지못하든 육탄전이 전개될것이라하야 심판의절대엄정을 그키우하야 특히사계에권위인 조선축구협회심판부에서 전유량(全有亮) 김명연(金命淵) 리영선(李永善) 권희창(權熙昌) 편무영(片茂英)기타수씨를 초빙키로되엿는데 정과순서는 다음과갓다고한다



堤川에火災

【堤川支局電話】 이십사일 오후 세시경 충청북도 제천(堤川)읍에잇는 조선식산회사(朝鮮殖産會社)제천출장소(堤川出張所)창고에서 불이일어나 휘발유에인화되여 맹렬히 타올라서 창고와 사무소를 전소한다음 소방대의활동으로 동한시이십오분경에 겨우진화 되엿는데 불난원인과 손해액은 방금 경찰에서 조사중이다

山中에靑年自殺屍

【永登浦】 어버이에게 꾸지람듯고 목매죽은 청년이잇다―지난이십삼일오후여시 가량되여 보병칠십구련대제구중대(步兵七十九聯隊第九中隊)원들이 한남정(漢南町)서 일천『미톨』이나되는 동북쪽 산림속에서 연습하고 잇다가 어떤청년이 소나무가지에 목을매고죽어 잇는것을 발견하고 이사실을 룡산서에 알리여왓는데 그서에서 사실한결과 이는 그동리 삼배쥐십오번지 김선겸(金善謙)의 넷재아들 순봉(順奉)(三)으로 전부터 방랑해나려오든중 죽든날아츰에는 자긔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톡톡하게듯고그것을 야속하게생각한끄테자살한것이라한다

白頭山探險團規(下)

七、主催側食料에 對하야는 各者持參도無妨하나 이는各個人이 保管運搬할것으로 [illegible]

八、各班配屬食料品의 使用은 各班長이 責任處理함

警備

一、警備는 咸北警察部로부터 武裝警官一隊를 派遣하야 警備에 當함

二、隊員은 警備隊又는 警察官의 指示를 嚴守할것

荷物處理

一、各班所用食料品과 天幕及自炊道具와 携帶에 따라서는 新設[illegible] 各班에 驛馬一頭式配屬케함

二、各班所用荷物은 [illegible] 一切를 班長監視로 各班이 各自負責함

三、行進停留何時를 不問하고 自班所屬驛馬는 當該班이 監視를 負責함

四、班所屬驛馬의 使用은 班所用共同品에限하고 個人所用品은 各自持運함

一、徒步行程中에 植物과 昆虫의 採集과 捕獲은 主催側에서 [illegible]

[illegible]

附則

一、一切裝備는 雨天을 [illegible]하야 準備하되 [illegible]

二、帽子는 登山用[illegible]

三、服裝은 登山服 又는 [illegible]

四、防水外套 又는 만도를 準備할것 (登山用紙製雨具[illegible])

五、下衣는 短袴도 조흐나 [illegible]

六、靴는 平素에 常用하든 [illegible] 登山靴로

登山日程豫定表（十二日十一泊）

日數	發着地	發着時刻	宿泊所	行程	行進方法	備考
第一日	京城發 車中	午前三時五十分京城發急行			汽車	夕食은列車食堂에서
第二日	車中 至茂山	午前十一時四十四分茂山着	茂山		汽車	警備打合、食料末整理、荷物配置 [illegible]
第三日	自茂山 至[illegible]	午前九時發 午後二時着	[illegible]	七十二粁	自動車	荷物整理 [illegible]
第四日	自[illegible] 至[illegible]	午前六時發 午後四時着	[illegible]	三十三粁	徒步	[illegible]
第五日	自[illegible] 至[illegible]	午前七時發 午後四時着	[illegible]	三十粁	徒步	
第六日	自[illegible] 至無頭峰	午前七時發 午後四時着	無頭峰	一八粁	徒步	明日의天池登攀準備 [illegible]
第七日	自無頭峰 至天池	午前五時發 午前十時着	天池畔	一七粁	徒步	[illegible]
第八日	自天池 至無頭峰	午後一時發 午後五時着	天池畔	一七粁	徒步	
第九日	自無頭峰 至三池淵	午前六時發 午後五時着	神武城	二九粁	徒步	
第十日	自三池淵 至胞胎里	午前八時發 午後一時着	胞胎里	一八粁	徒步途中	準備된自動車(貸切)로惠山에
同日	自胞胎里 至惠山鎭	午後二時發 午後五時着		五一粁	自動車	
第十一日	自惠山鎭 車中	午前六時發 午前九時[illegible]	列車食堂		自動車及列車	午後一時五十九分吉州에서咸鏡線乘換
第十二日	車中 京城着	午前六時五十五分着			汽車	解散

可하고 熟練한 登山家는 不可함

七、食料中 主食은[illegible] 手巾과 冬內衣一着式을 準備할것(毛布는 [illegible])

八、夏內衣[illegible]

九、水筒(大型)과 [illegible]

十、[illegible]

十一、[illegible]

登山衛生

一、睡眠을 充分히 取할것

二、空腹이 안되도록 各食事時는 (特히朝飯을)充分히 飽食하고 無常時는 過飮過食을 愼할것

三、白頭山登山中 飮料水가 到處에 잇지안는까닭으로 [illegible]를 充分準備할것

四、靴傷豫防의 注意

1 洋襪을 두겁게 신지 안토록할것

2 구두끈을 너무 홀홀히 매지말것

3 濕한 洋襪을 오래 使用치말것

4 休息時는 [illegible]하고 붉게될時는 冷却시킬것

5 부르트거든 함부로 切開[illegible]

五、[illegible] 使用할것

六、白頭山下[illegible]水는 [illegible] 大體不[illegible]

七、日射病注意

1 頭部에 濕布를 자주하고 [illegible]

2 [illegible]

八、[illegible]

九、食後[illegible]

十、隊員中 病者가 [illegible]

運動競技

올림픽委員會追頭 投票의歸趨는混沌

【伯林二十三日發展】 次回올림픽大會開催地決定은『헬싱키』냐『東京』이냐?하야 世界스포―츠界의 視聽을 集中한가운데 卅日卅一日『호텔・아드론』에서 열리는 國際올림픽委員會에서 投票決定케 되엿는데 投票方法은 無記名으로 카―드에 委員自身이 記入치안코 東京、헬싱키、倫敦이라고 印刷한카―드를 配布하야 各國委員이 取拾投入할 準備를하고잇다

投票數六十五中에서 米國委員 세릴氏는 最近急死하고 쟝케氏도 委員을 辭任하엿슴으로 米國은 新委員을 補充치안는限 카―렌드氏의 一票뿐임으로 南北米의 十四票 亞細亞五票 大洋洲 三票 亞弗利加二票 歐洲 卅九票로 郵便投票를包含하야 最後投票數는 六十四票로되여 日本에게有利하리라고보이든 約四十票는 倫敦의復活로 十數票를 일케될 으로 形勢는 混沌하야 豫斷을 불허하게될수업다

그리고 이번은 極東大會에關한 議題도 提議되여잇슴으로 中國委員王正廷氏의 行動은 注目을 이끌고잇스며 濠洲、뉴―지―란드、印度、加奈陀等 日本에게有望視되든 英領植民地의去就가 豫

中等野球豫選
各區優勝戰經過
西朝鮮은光成高普

大朝主催의 甲子園中等野球大會朝鮮各區 第一次豫選戰의 決勝戰은 二十四日 午後二時부터湖南、西朝鮮、南朝鮮、北朝鮮地方의四地方에서 一齊히 擧行한바 다음과가티 西朝鮮代表로 光成高普、湖南代表에 光州中學、南朝鮮代表에 大邱商業軍이 各各優勝하야 來廿九日부터京城에서 열릴 第二次 豫選大會에 出場키로 되엿다

▲湖南地方決勝

大田中學	000003000	3
光州中學	000200011A	4A

▲西朝鮮地方決勝

鎭南商工	000030500	8
光成高普	040401002	11

▲北朝鮮地方決勝

咸興商業	301000000	4
咸興高普	002000020	4

日沒로 今二十五日 午後二時부터 決勝戰을 繼續擧行할터

▲南朝鮮地方決勝 大邱商業10…7釜山中學

今日의 運動

▲野球=甲子園中等野球 中部豫選準決勝・善商對京師(後一時) 仁商對京商(後四時) 京城球場(觀覽無料)

▲A마라손=第十六回A마라손會 午後五時 光化門通네거리에서 擧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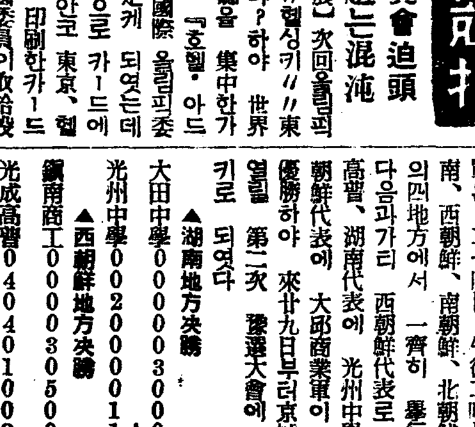
▲排球=廣島高女招聘戰 對第一高女(前十時) 對京城女高普(後一時) 對師範附屬(後三時) 鐵道局코―트(觀覽無料)

"샤―키"와"루이스"
◇…拳鬪界에 異生의 一戰

【紐育廿日發】 世界重量級拳鬪選手權爭奪戰을 압두고 『수메링』에게 敗退한『조―・루이스』는 覇權을 目標로 再起를 決心할데 八月十八日 『양키―・스타듸움』에서 前選手權保持者『잭크・샤―키―』選手와 十回戰을 行하기로 되엿다

科學獨逸의 자랑
新案計時機採用

【伯林發同盟】 目睫間으로 接近한 第十一回올림픽大會에는 萬全을期하기爲하야 『오한네스 후릭크』氏의 發明에 依한 百分의一秒를 記錄할수잇는 同時에 其動作은 『스타―트』用『피스톨』의 發射와 함께 電流에依하야 作用하며 딸아서 活動寫眞機로因한 寫眞記錄까지도 完成한다는 『타임레코―다』界에 驚異的으로 完全한 裝寫眞機를 使用하기로되엿다 (寫眞은出發短銃과 타임레코―다)



림질 根治保證의局所療法

慢性痼疾도즉시根治되는 世界的發明療法

自宅에서도絕對完全히치료할수잇는醫師의專門淋疾藥

東京西淋疾科病院院長 醫學博士 西謙一郎

◇內服藥으로는絕對로根治가못된다

우리의사(醫師)의립장에서보면 내복약은 一時的안정에지나지못하니 림균(淋菌)을죽이는힘이 전연업서 다만 뇨도(尿道)의고통을 잘나오게하는가 어느정도의 진통(鎭痛)수염(收斂)작용이 잇슬뿐인것은 독일의 세계적의학자『와렌친』『슈라인』兩博士와 그외 각국의전문대가의 림상보고(臨床報告)가 증명하고잇는바이나 사실상으로도 백년전통그외의어더한내복약일지라도 근치를 식히지못하고 오히려 위장(胃腸)에 고장을늑겨주거나 신장(腎臟)을 자극식혀서 혈뇨(血尿)가 나오게하는 유해작용(有害作用)이잇슴으로써 확식잇고 치료에능난한 전문의사는 내복약을그리사용치안코 바로 신용잇는 절대효과잇는 국소살균법(局所殺菌法)으로 단시일안에 림질을근치식혀주워서 환자를 구원한다 참으로 이것은 세계에공통된 절대진리(眞理)인것입니다。

◇從來의治療藥으로는곳再發된다

림질은 반듯이 국소료법(局所療法)으로써 은제(銀劑)라야만 근치된다고 세계의학계에서 결정되엿스나 수만흔 국소은제가 생겻스나 모도가 연구가충분치못한결과 하나도 의사의만족을엇을만한 국소은제의 전적사명(全的使命)을발휘치못하야서 장구한시일을두고 치료를계속하여도 환절기나 과로를한후에는 또다시 재발케되는것이엿다 즉 뇨도속에는 해면체(海綿體)라는 적은주머니가모혀잇스며 그사히를 뇨도측관(尿道側管)이라는가는관이 잇스니 림균은 그사히에 바로 침입하여버림으로써 한번 그속에 림균이 들어가면 종래와가튼 세척약(洗滌藥)으로 씻거나 안마조라는 내복약을장복하거나 뇨도좌약(尿道座藥)또는 삽입약(挿入藥)가튼 주입의 흉은 국소은제 종류일지라도 조직심부(深部)에숨은 림균을죽일수가업스니 또재발되지안을것업니가 이것이 종래의국소치료약의상태이며 그외 주사(注射)나 광선료법(光線療法)과 전기료법(電氣療法)도치료비가 결니는대신에 그리대소련은 치료효과를엇지못하게되야 전문의(專門醫)들은 종래의 치료법에는 만흔고심연구를 거듭하든것이엿스나 지금에야 의학계가경탄하는 책임잇는 근치약이 발명되엿습니다。

◇속속드리뿌리배힌 림균을 곳죽이는 부라온銀의 超威力

탈복할만치 단시일안에 만성고질이된 림질을근치식혀주어서 세계의醫師의리상을 실현한 현명적치료약 부라온銀 겐고―루의 발명은 참으로 전세계의인류의행복이오며 치료계의 일대광명일것이다 주요성분 부라온銀은 이것을千倍나묽게하여도 五分이내에 완전히 림균을죽이는 맹렬한살균력(殺菌力)으로 뇨도에속속드리 뿌리배힌림균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경이할만한발명은(發明銀)이니 전문의사의모로가 림질근치약이라고 증명하는것으로도 알수가잇다。 더구나 한번에 한방울의약으로 단二分間에 치료효과가 낫타나는약으로써 [illegible]기운은 속으로퍼저서 단시일안에 전신의고장을 곳처주며 병의근의뿌리를죽하 뿌리때줌으로써 엇더한환자도 실망하지안코 근치할수잇는약이다。

◇十數萬의환자를구원한뚜렷한실례

내복약 또는 다른치료법으로 고질낭종이된 림질도 곳낫게되나니 내가 병원(病院)에서 실지사용한결과 十數年내의 난종도 단지 한달만에근치가되며 一二三年된것이면 이삼주일에근치가된다 의사가 절대로신용하는권위약으로 자택에서라도 절대안전히근치할수잇슴으로 벌서十數萬의전쾌실례가잇다。하로치료가느지면 이를곳게낫게될으로 속히 겐고―루로 결정완치료법을하여주기를바랍니다。

醫學博士 元東京吉原遊廓 吉原病院長 佐藤榮先生

독신남녀때는 물론이요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은
부부협력하시와 겐고―루로
치료하시사 속히근치하여버립시다

림질은 요도심부에 뿌리배힌림균을 죽여야만 근치된다
부라온銀은속속드리퍼진림균을곳죽임으로속히근치된다

지금까지림질의 근본적치료법은 세계의학계의 숙원이되여잇섯스며 의사와학자제현은 만흔고심을하여왓든것입니다 [illegible]

전해결되엿습니다 부라온銀겐고―루의 다원성 치료법 겐고―루만이 가질수잇는 강렬한 살균력과 심달 소여작용으로 뇨도표면은 물론이요 조직심부에 속속드리뿌리배힌 림균을 모조리 꼿죽여버리며 고통을삭게하고 단시일안에 오줌이 맑거지며 근치가 됩니다 약한방울로 단二分間이면 효과가낫타납니다 아무 위험성이업고 사용법이간편하야 집에서라도 속히 병화근의뿌리를빼버리는약이오니 놀재발하야 고통을바드시는분、다른치료법에별다른효과를엇지못하시고 고통을바드시는분 급성중으로 고통에못이여 허둥지둥하시는분은 조곰도 주저마시고 본제로치료하시사 속히 근치의깃뿜을 어더주시기바랍니다 무슨약보다도 제일효과잇고 빨니 근치된다고 우리는 千里江山의환자제현께 칭찬과 감사로환영을밧고잇는『겐고―루』에는 약가 논가르나 병세에따라 구별이잇사오니 병세를자세히쓰시고 문의하시면 송료를부담하야 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해드립니다。

普及藥(급성용 만성용 부인용) 一圓九十錢
貳瓦入(十七日量)三圓六十錢
五瓦入(卅五日量)七圓

자세치료서무대진정

東京市芝區三田通新町 日東製藥合名會社 振替東京三一九四三番
京城新井藥房、木村藥房 釜山 大黑南海堂 全道藥房에서販賣함

캠푸村에外燈架設

【仁川】 여름의인천을 소개하자면 제일먼저월미도(月尾島)를 연상하게되는 바이 월미도는 해수욕과 「캠프」로서 유명한곳이라함은 이제새삼스러히 말할것도 업거니와 근래에 보기드문폭서와 함께 하기휴가로 캠프(天幕)생활을하고자오는 캠퍼」이무려 수백여명에 달하고잇스나 아즉 외등(外燈)의 시설과 위생에대한시설이 충분치못하야 도민들(島民)과 캠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늣기고 잇는 형편이라 일반의비판은 날날이 놉파만간다 한다

除外된 電車賃金改正에 永登浦民大憤慨
無視할업는大工業地區
京電의猛省을要求

【永登浦】 경전이 소화원년(昭和元年)중 경인(京仁)전차를 인수하고 영업을확장한후 경영(京永)간의 승차임금을 종래대로 답습할뿐아니라 도리어 영등포경성간은 경인빼쓰시대보다도 빗싼임금을·바등으로밧로 비약하여 나가는 경영간의 상공업 기타도시발전을 저해함이 현저하다하야 사오년래로 영등포공직자유지들은 주민을 대표하야 긔회가잇슬때마다 회사당국과 도경찰부、철도국등 관계각료관청에 대하야 누누히 진정을 거듭하여왓스나 회사당국에서는 여러가지사정상금히 실시할수업다고 이때까지밀어오는터로 경영간시민의 원성은 날로노파갈뿐이엇섯는데 금번시월 일일 대경성 건설계획에의한 부세확장이단행되자 시민들은 다시변태의중요 현안이든 정회구역등일문제 전차연장문제 빼쓰임금저하문제등이 대두하야 관계당국에 그실현촉진을 요망하여씀에도불구하고 지난이십이일 발표한시내 전차임금저하에 유독 영등포관이 제외되엇스므로 시민들은 경전당국의 무성의 한태도에대하야 크게 불만을 품고 사회적여론이 점점 격화되여 그결과가 자못주목되는 터인데 말할것도 업시 영등포는 최근 공업구로서 중요한 지위에 잇는만치 총독부 당국에서는 막대한 국고금을 기우러 어 한강연안의 보호방수공사 경인간 산업도로의 개수공사、한강 인도교의 가체(架替)공사등 조선의 수도인 대경성의발전에긔여함이 적지안허서 지금 연영등포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이 년이천만원이나 잣가올게비약적발전을 보게되는 반면에철도、전매、체신등 관영수입은물론세금기타 국고수입이 해마다 격증하야 그야말로 제이대판을 형성하고잇는 이중요한 기초공작시긔에 잇서서 적어도 사회적 중요한 사명을 가진 특수회사의 무성의한 태도는 크게 반성할필요가 엇다 고하야 일반시민들은 분개하는터인데 여긔대하야 경전당국자는

절단코 제외한것은 아닙니다 이번의 료금저하는 구시내를 중심으로 전차임금에 한함뿐이고 기타 특히영등포에 잇서서는 전부터 여러가지로고려하고잇는터인데 아시는바와가티 한강인도교가 아직공사중일뿐아니라 교통통제 감독관청인 철도국의 방침도잇슴으로 여러가지로 고심연구중에잇습니다 이런 주문은 업드라도 영등포는 경부、경인간의 관문이고 폐사에서도여러가지 폐를만히 끼치고 잇는터이며 장래큰발전을 보게될것임으로 충분이연구하야여러가지 방법으로 안을세우고 잇는중입니다 시외로제는 말할수업스나 한강인도교도 근근중통과될터임으로 중의회의를 가지어 감독관청의 지시를바드려고하는터인즉 시민여러분이 잘량해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時日問題뿐 改定에努力
道趙保安課長談

진정이엇다고 제외한것은 아니오 시외방면들은 면여할수업스나 엇재든 오래전부터 고려를하든터이오 당국에서도 영등포발전의 중요성에감하야 여러가지방법으로 경제시간동 질로나 량으로나 접근하도록 고심노력하는터이며 교통기관에잇서서는 철도관계도잇스므로그러케간단하게안됩니다 하여간 평일에 여러가지 시설을 구시내동양으로 완비 하도록 노력하는중이오 그 일례로는 소방기관을 다른 방면보다 간절하게충감하야 힘을 드리는중으로 즉 영등포에는 근근소방파출소를설치한후 소방자동차를두고 소방수도 열다섯명내외로 상치할계획이오 빼쓰임금문제는 목하신중이 연구하는중임으로 멀지안허서 그실현긔가 도래할것이니 여러시민의게 안심하시도록 전해주서요 운운

松峴里下水工事
遲延으로不平이漸高
府會까지豫算通過된工事를 着手치안코는放棄

【仁川】 매년장마때를 당하면 수해를 입고잇는 송현리(松峴里) 화평리(花平里)일대는 항상 불충분한 하수구(下水口)관계라수백래 주민의 숙망에 하나이엇슬뿐아니라 부당국에대한 불평이 적지안튼바 금년도예산에야 겨우 동지대의 하수구공사예산이 통과되야 주민일동은 수년만에 정기적으로 밧는수해를면하게 될것을 생각하고 잇든바 인천부 토목과(土木課)에서는우금 착수치 아니하야 금년여름에도 수해를 입게되얏다 이는 단지 토목과의 무성의한관계라 주민수만명은 부당국에대한 불평이 날날이 노파갈뿐이라한다

修業年限二年(明年度)의 簡易校九個所設置
各普校의十八夜間講習所들이에合流
京城府의都市簡易校設置案

지방농촌에서만 세워왓든 간이학교(簡易學校)를 도시에도세우는것이 조켓다는 총독부의방침에의하야 경성부학무과에서도 간이학교설치에대하야 립안중되근그안의성립을보앗는데 그안에의하면 명년에 아홉교(학교를세우고우선한학교에 한학급을두어한학급에 칠십명식수용할터이고교원도 전임을배치케할터이라한다 그리고 종래시내보통학교에서 밤에해오든 십팔개소의 강습소도 간이학교로합치어 이학년으로할 작정인데 이간이학교역시 농촌간이학교와 마찬가지로 나만흔아동을수용하야 학년은이년제로하고 보통학교사학년의정도의학력을 엇게하여주고 할수잇는대로 도시생활에 적당한직업과목을 두는것을 특색으로하리라한다

開城商議役員改選
後任會頭朴鳳鎭氏

【開城】 이번 개성상공회의소(開城商工會議所)역원개선총회(役員改選總會)는 지난이십삼일오후두시 부청회의실에서 개막되엿다 이총회를압두고 이십명의의원들이 결속이되여 이번회두(會頭)후임선거에 잇서서 개성상공상공발전을 위하야 히생적으로 사재를기우려 로력할만한 참된인사를 출마시키도록 하자고수차구수밀의가 잇서왓든바 개성에명망이노픈 유지 박봉진(朴鳳鎭)씨가 이에적임자로 출마케되엿다 씨는평소에도 개성사회를위하야 진력한공로가 만커니와 더욱이 이번 개성상공업발전을위하야 적철금빠지안토록 어떠한사업이고 한가자 실현해보겟다고 소회까지 피력한바잇섯다 부회두(副會頭)론 공진태(孔鎭泰)씨、鐘閣구旦(八木右一)씨가새로당선되엇는바 양씨역시 개성사회에신망이 놉흔이들이다 다음역원으로는!

▲常議員 張鳳澤 金東鉉 金日永 林漢陳 ▲各部所屬員 ▲商業部長金泳然 ▲金融部長崔仁鶴 ▲工業部長井本高市 ▲交通部長林漢璟 ▲會計監査委員 金基亮 朴二鉉 李鐘歡

井中에落胎屍
開城署活動을開始

【開城】 부내 남산정(南山町)에잇는 서편메주우물(西邊珠井)에선 지난이십삼일새벽 그동리사는 녀인이 걸네를빨고저 물을푸는데 두레박에 무엇구레미가걸려올라왓스므로 자세히 펼처보니 의외에도 그것은 녀자의치마자락에 싸힌 락태한 붉은피덩인것이 판명되엿다 이소문을접한 개성서보안계주임은 이것이 기아로경사건에 큰단서나아닌가하야 소방대까지 출동시켜가지고 현장에달려가 약두시간동안이나 총동원이되여 그기풍우물을 치게햇든바 피무든의복네벌만 나왓을뿐인데 이것은 확실히 어떤처녀의 불의의소행가틈으로 경찰은 그동리집집낫낫치 수색하얏스나 별반단서를 엇지못하얏다한다

永登浦町 第四區町會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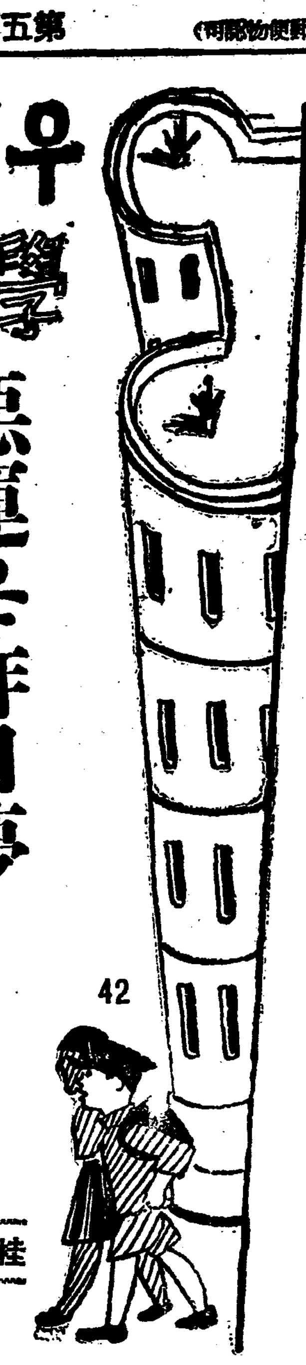
【永登浦】 시내영등포정 제사구(永登浦町第四區)정회는 준비위원 김직상(金直相)씨와 기타수씨의 알선으로 제반준비가되어 수일전 진흥학원(進興學院)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과보고 취지설명 규약제정등이 잇슨후 좌와가티 역원선정을한후 원만리에 폐회하엿다고한다

▲總代 金直相
▲副總代兼會計役 李義鎔
▲副總代 三島彦治
▲顧問 南相臨 城島方吉 李鐘夏 李重華 李圭斗
▲評議員 孔鵬烈 李恒夏 李孝元 李鍾甫 金洛遠 趙南錫 李和珪 文教順 金澤燁 鄭錫根 李永奉 趙萬九 李基麟 申奉均 全德三 崔奉根 李吉永 佐藤騰松 金達然 洪樂約 柳成胤 崔仙伊 金日煥(書記兼) 鄭寅泰

第二部教育部會

경성부에서는 오는 이십칠일오후두시로부터 경성부제이교육부회를 부청회의실에 소집하고 소화십일년도 경성부제이부특별경제세입세출추가예산과 토지교환의것을 심의하기도되엿다

우리아들딸 學園이돌
惡運은昨日夢!
萬年不敗今日의礎石
三十餘年前故李容翊氏創立
大東商業姉妹校로



桂山普成校篇

대동보통학교(大東普通學校)가게동정(桂洞町)에 잇는 거게 그학교거니하는 몽롱한 생각으로 차자들어가니 발서 그학교는 게동정(桂洞町)에잇는 대동상업학교(大東商業學校)뒤으로 옴겨갓다는것이엇다 짜는듯한 삼복더위에 숭간숨게 허덕거리면서 게동쪽으로 굴어들어 노픈지대에 안저잇는 대동상업학교뒤로 올라갓다 그전 계산학교 (桂山學校)이던 날근목재이층 교사뒤에 새로히 건축된 벽돌삼층건물이 그전의 대동보통학교가 아니라 현재의 계산보성학교 (桂山普成學校)이다 하로압서 방학이되여 버려 교사도 텅비여 잇섯스며 새로히 딱가노흔 넓은교정에는 수명의 상업학생의 공치는소리만이 한가러웟다 이윽고 당직선생을 차저보고 온뜻을 말하나 잠간사람을 보내여 그뒷집에잇는 현재 대동상업학교와 이계산보성학교의 교장을겸임하고잇는 김만수(金萬壽)씨를 맛나게하여준다 이리하야 이학교의대강의 력사를 어더들엇다

이학교는 발서그근원이 멀리 삼십여년전 한국시대에 고리용익(故李容翊)씨의 힘으로된 보성소학교(普成小學校)로부터나온것인데 그후그경영이 천도교(天道敎)로 넘어갓다가 천도교에서이를경영 할수업서 룡곡중학교(龍谷中學校)의 손으로그리고 도진진녀학교(實踐女學校)의리상수(李相壽)씨의 손으로 굴르고 굴르다가 드듸여소화 칠년현재의오십만원 재단법인 대동학원(大東學院)이 그경영을 맛게된것으로 계산학교와 보성학교가 합동된것으로하야 소화 구년에 교명을 계산보성학교라고 한것이라고 한다 그전 대동학교에 중등과와 보통과가 잇던것이중등과는 현재의 대동상업학교가 되고 그보통과가 이학교로 편입되여 버린것이다 이와가티여러구비를 돌아온 이계산보성학교는 지금은 고창한(高昌漢)씨를 리사장으로하는 튼튼한 재단미테서 모든설비가 가추워저지고잇는동인데 명년도에는 그필코 보통학교로 승격될모양이라고한다 현재 졸업재 칠학급으로 아동이사백사십삼명에 달하며 선생님이 일곱분인데 대동상업학교의 부속보통학교격으로 해마다 십여명이나 상업학교입학자를 내이고잇다 이와가티 경제적기초가 튼튼해진 계산보성학교가 그노픈곳에서 사방을 깔아보는듯시 이학교학동들의 몸과마음이 튼튼하게 또는 노프게길러지며 교운이점점 성해질것을 밋는바이다 시내각보통학교에서는방학이되여다 한여름동안 우리네아동들이 몸성하게 가정에서 일거돕고 복습하고 뛰여놀며 공게지내기를 바라면서 이순방고를 뜻만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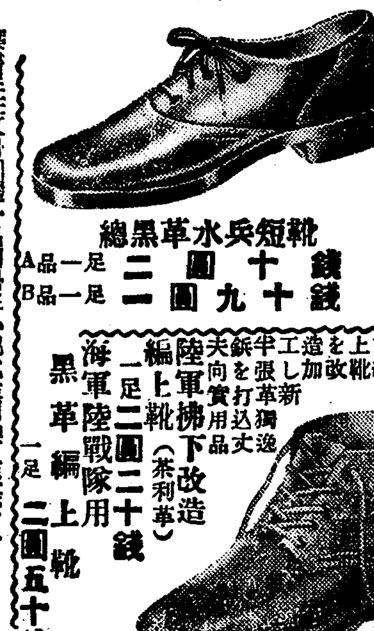
二等品卸 人絹綿布ネル別珍
大阪市南區末吉橋東詰
ハギレ 高橋清商店
新聞業特別御指導
電話東(四)三〇一九〇番 振替大阪四三〇一九〇
取引銀行住友三和

코 흘니개와 코 메히는
治療方秘訣
申込所 東京市芝區佐久間町二ノ二

朝鮮日報社 釜山支局
長途電話釜山二八九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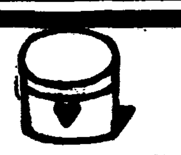
皮膚病治療에外用常備藥
압호고근질근질하는무좀·래독·땀띄 부름·버짐等의 皮膚病菌은水分이 만흔여름이絶好의 繁殖期이다 一刻이라도速히「一二三」으로治療하시라.
効 버짐·음낭습진·무좀·태독·백납·쇠땀띄·진무른데·실컨데·濕疹頭瘡·구두에스린데·切傷·火傷·胎毒·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各地有名藥店にあり
東京市神田區明神下 一二三 本舖 岡天然堂 振替東京一二三七二 實効散
NO132

오시요! 보시요! 果然
補精助陽에 天惠的元素인
樺太廳官營捕獲
同廳水産物檢査所證明付
眞品海狗腎 展示即賣會
時日 自七月二十五日 至七月二十七日
毎日 午前九時부터 午後五時까지
會場 京城府民館
釜山大洋貿易鮮滿宣傳部


總黒革水兵短靴
A品一足 二圓十錢
B品一足 二圓九十錢
◉海軍拂下水兵短靴 本品은海軍의拂下水兵短靴를改造한中古品으로서 新品牛張革으로堅牢無比
◉軍隊拂下改造編上靴 本品は軍隊拂下中古編上靴を改造し加工張革新造 實用向を打込丈夫
陸軍拂下改造編上靴(茶利革) 一足二圓二十錢
海軍陸戰隊用黒革編上靴 一足二圓五十錢
葉書로注文하시면一品이라도小包代金引換으로送付함
名古屋市東區淸水町局前
卸問屋 松山合名會社
電話本六二一九番·振替名古屋一二五一番

海軍省拂下品の大安賣
◉海軍省拂下防水布外套(黒色中古品) 一等品一着に付二圓九十錢
本品은現在海軍에서使用하는中古品으로 黒厚ゴム引肩二重
◉鐵道省拂下防水布外套 一圓八十錢
防水着用에絶對安全品이다

好職業
男女御近不問自宅執業業○無人歩合生品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場前 博文社


ラランポマード 는
油質이大端히좃슴니다.
香氣도大端히좃슴니다.
그래서
大端히評判이좃슴니다.

CAS—14

最高級淸涼飲料
三ツ矢サイダー
リボンシトロン
最近弊社의リボン印三ツ矢印의商標에恰似한類似品이잇스므로注意가必要합니다

차타
爽快한刺戟이
疲勞를씻고元
氣를甦生식히
는芳醇
二大ビール

이삐ー루一瓶의榮養價는鷄卵四個、牛乳三合에適當함

サッポロビール
アサヒビール

朝鮮麥酒株式會社

産業

懸案의棉花補償制 實現機運頗濃厚
方今成案中으로經費要求豫定
現下農村焦眉의問題

棉花增産計劃과 不可離의 關係에잇는 棉花補償의 施設은 農林局의 一大懸案으로되어잇서 再昨年度以來 그豫算을 要求하얏스나 兩回모다 大藏省의 斬殺을 맛나게되엿는데 十二年度는 原料自給國策의 見地에서 棉花增産은 더욱重要性을 帶하게되엿슴으로 計劃擴充案은 勿論 右補償도 大膽히實現될 希望이잇슴으로 農林局에서는 昨年案을 根本的으로 再檢討한후十二年度豫算에 要求하기로되엿다 그런데 棉花補償은 大體棉作共濟施設로할豫定으로 初年度의最大補助百五十六萬圓을 豫定하고 最低價格을 斤十錢가량으로할成案을 講究하고잇다

苹果生産販賣를 全般的으로統制
目下그具體案을考慮

內外各市場에서 자칫하면 激甚한競爭으로 價格低下를 誘導하고잇는 朝鮮產苹果의 統制問題의 急務를 痛感하고 于先 先屬로 最者 西朝鮮苹果會의新組織을 보앗는데 總督府에서는以上의 統制에서 다시 一步前進하야

一、全朝鮮各產地의 苹果輸移出統制

一、日本內地市場의 競爭調整

一、外國販路의 積極的開拓의各諸點을統制하야 特產苹果의聲價를 어데까지던지 發揚하려고 目下慎重히 具體案을講究하고잇는데 그方法으로 總督府에서는 今秋朝鮮內各當業者와 日本內地問屋關係者를 集合하야 右에對한懇談會를 開催하려고準備中이라한다

釜山水產檢查品 輸移出자못旺盛

六月中의 釜山水產檢查所에서 食用으로 乾製한 水產檢查品 即 海參、鱶、乾鮑、剝蝦、皮付蝦、櫻蝦、乾玉筋魚、乾牡蠣、淡菜、乾海苔等 十餘種의 合格數는 三千百一個로 이것을 前年同期의 一千七百九十五個에比하면 四割强의 增加를示하얏다 그輸移出地는 海參은 大連方面에 剝蝦淡菜는 主로 上海方面에 皮付蝦、櫻蝦는浦原、靜岡、大阪、下關地方에 乾牡蠣는 神戶、長崎方面에 移出되야 자못活氣를 呈하고잇다 그리고 食用罐詰品인 鮑、蟹、鰈、鯖水炊等의 合格品數는 一萬二千百十四個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二百六十個의 減少인데 그것은 慶北、江原道方面의 海溫이나저서 鰈의捕獲이 減少하엿스나 鯖水炊가튼것은 鬱島方面의 好漁로 油分이만코며 品位가 良好하기때문에 神戶港中繼로 南洋方面에 輸出되야 好評을엇고잇다

貯銀積立減少豫想

貯銀의 殖產積金은 現在七千七百萬圓에 達한바 三年前의 募集積金約六百萬圓期限이 七八의兩月에 相當하고 또社屋新築記念積金募集의直後로 多少減少할모양이라고

各戶指導와併行 共同施設을促進
十四萬五千戶・三十五萬人을超過하는 漁村振興策을講究中

戶數十四萬五千、漁業者數三十五萬을 超過하는 漁村의 振興에對하야 總督城에서도 昭和十年以後 本格的으로 施設을하야 今年度에는 다시 全朝鮮各道漁業組合에 專任書記를 設置하는等의 工作을 하고잇는데 漁業의 特殊性으로 各戶指導와 併進하야 共同施設을 進行케하라고 目下 水產課에서 그對策을 맨드는터이다 即

一、漁場關係

가、漁場開發＝內水、淺海、近海漁場調查

나、水產增殖＝養殖、移植、人工孵化、放流、外敵、驅除

다、漁場保護改善＝魚附林、築礒

라、漁業에關한施設＝漁船、漁具、漁法의改善指導、漁況의通信、漁場의觀測、漁業權問題、漁業의選擇에對한 部落的自治統制

三、漁獲物에關한施設

가、貯藏、加工、處理의調查研究

나、共同氷藏、冷藏 及 共同出荷統制販賣

四、經營節減에關한施設

가、漁船、器具、燃料의共同購入

나、製造用具材料의 配給統制

다、生活用品의 共同購入과生產

라、其他

緊船設備、共同作業所의 擴充 災害防止、漁業金融等의 各項에 亘하는것인데 總督府에서는 漁村更生에는 一般農村과달라 모다以上 協同運動이 重要한點을 考慮하고잇서此中 數種은 明年度國費豫算에도 計上되어 그指導方針下에 가장經濟的으로 幼稚、粗枯한 漁村에 更生의 活力을 注入할豫定이라하야 注目되고잇다

鷄人工孵化
②…諸般注意事項

孵卵器의 種類는 前述한바와가티 人工孵化를 盛히함을따라 漸次 增加를 示하고잇는데 此等은 大體로 溫湯式과 溫氣式으로 大別할수잇다 前者는 溫源이 器內에잇고後者는 器外에잇서 따듯하게된空氣가 器內에 導入되게되어잇다 어느것이나 熱源은 石油 瓦斯 電氣等으로 孵卵器는 恒常 一定한 溫度를 保持할必要가 잇슴으로 어느器械에나 溫度의 調節器가 裝置되어잇다 이調節에는 液體의熱에依한 膨脹을 利用한것과 金屬의 膨脹係數를 利用한것의 두가지가 잇는데 이調節器가 孵卵器의 生命이다 하야도 조흘것이다 溫湯式孵卵器의 代表的인것은 英國스프랏트파렌트 株式會社製의 히야손式孵卵器로 六十個入、及六百個入이 잇는바 液體利用의調溫器가 裝置되어잇다 溫氣式의 것으로는 米國사이파ー스式孵卵器가잇는데 이는 ー스孵卵器製造會社製의 熱源이 石油用의 것으로 百四十四個로부터 三百九十個入의것이잇다

溫湯式과 溫氣式의 得失에 對하야 말하면 前者는 構造가 幾分複雜함으로 價格이 比較的비사고 修理費도 만히要하는우에 夏期의 使用은 좋흐나 冬期使用에는 자못困難하나 이時期에잇서서 익숙지못한者에는 가장 適當할것이며 熱源費도 比較的經濟的이다 이에 比較하야 後者는 構造가 簡單하나 그만치外界的影響이 銳敏인點과 大型은 溫度의 上昇이 速하고또 溫氣가 不足되기쉬움으로冬期는 特히 注意가 必要하다 그러나 夏期에잇서서는 整溫이 速히되어 使用에 便利하다 또 比較的 싼것도 此器의 特點이라 할수잇슬것이다 爲先 現在의 外國製의小型 孵卵器로서 이 두가지가 가장 代表的의것이라하야도 無妨할것이다。또實際 他의것의 殆半은 이두가지의改良에 不過하다 日本서도 現今은 相當히 優秀한것을 만들게되엇다 그主要한것을들면 伴田式溫湯及 溫氣式(石油)良友式(溫湯)高橋式(溫湯)中部式及衣川式(溫湯及溫氣電氣)吉岡式(溫湯及溫氣)服部式(溫湯)等으로 적은것은 七十個入가량으로부터 大型으로는 數百個入의것이잇다

以上은 所謂 平面式이라稱하는 孵卵器인데 立體式이라는 巨大한 孵卵器도잇다 入卵個數도 前記平面式과는 比較도안되어 數千으로부터 數百個나 一時에 孵化할수잇는大規模의것으로 그代表的의것은 스미스式立體孵卵器와 피ー러ー사임씨孵卵器이다 以上과가티 孵卵器의 種類는 자못만허 그選擇에 相當히困難을 感할는지모른다 그러나 孵卵器라는것은 一定한 溫度를 保持하는것으로 될수록 싼것이 조흘것은 一定한理致이다 이는 어느 一定한 狀態에서 一一히 比較하야보지안흐면 決定할수업을것이다 더욱 嚴密히 말하면 同一한 孵卵器일지라도 溫度의 調節이 뜻대로 잘되지안는것임으로 選擇購入에 當하야서는 製作所의 經營狀態即 信用程度를 알必要가잇고또 經驗者의 意見을들어야入하는수밧게 업을것이다 入하얏거든 器械에對하야 經驗을 듯고 그器械의 說明書를 잘 닑어도 완전無欠하다고는할수업고 그器械의 特性이 잇슬것이니 그特性을 速히 알어야될것이다 孵卵器의 選定은 經驗者의 意見을들어 信用이 確實한 곳에서 購入하야가지고 그孵卵器에 速히익숙하도록 經驗을 쌋는外他途가업을것이다

孵化함에當하야서는 特히 새로 購入한境遇에는 반드시 孵卵器를 크레오린液이나 크레졸石鹼等으로 一旦 消毒하는것이 安全하다 그런後 이를 잘 말리워서 整溫을 반드시하야볼것이다 이것이 잘되지안흐면 암만 入卵하야도 失敗할것이다 前述한바와가티 器械에는 各히 特性이잇스니 그것을 試驗하야 보지안흐면안된다 그리고 缺點은 矯正하도록 研究할것이다 例하면 卵台의 各部溫度가 一樣치안흔境遇에는 轉卵과同時에 卵의位置의 轉換이 必要하고또 通氣調節에 卵台를 꺼내기때문에 溫度가 降下하야 容易히 回復되지안는境遇에는 이미 溫調에 注意하야 一時 火焰을 크게하고 或은 寒暖計의 位置가 正確한가 어떠한가 또는 溫度가 適當히 保持되어잇는가 그他點에對하야 精密히 調查할必要가잇다 그와同時에 孵卵室의 事態에對하야考慮하지안흐면 안된다 그孵卵室內의 溫度또는 濕度等이 意外로 銳敏히 孵卵器에 影響하는 境遇가잇스니 기피注意하지 안흐면 안된다 孵化에 着手하기前에 周到한注意로써 準備하지안흐면안되다 前述한 消毒도그一이요 器械의 特性도 알아두지안흐면 안되지만 整溫에對하야서는 무엇보다도 注意하지안흐면 안될것으로 이에도 熱源에 注意하야 람푸式의 境遇等은 그芯을 고르게잘라서點火狀況이 特히 火焰이 整一하게되도록 注意할것이다

알콜燃料의 重要性加重
日本의燃料解決策

昭和九年의 石油消費量을 前年度에 比較하면 日本一四・一%獨逸二・四%、英國一〇・一%米國五・四%、佛國三・五%、伊國一二・二%의 增加로 日本이 世界十一位이다 그런데同年의 日本石油全產額은一、六一〇、〇〇〇石으로 그所要한 消費量의 約八四%、世界全產額의 約〇・一%、消費量增加의 五九・六%에不過하다 即日本의 石油產額은 平時의 石油需要額의 逐年的增加에도 充當할수업다 揮發油에 이르러서는 더욱 甚하야 昭和九年의 消費量 增은 一、〇%임에 不拘하고 日本產原油로製造한 揮發油總量은 全消費量의 五・四三% 即 增加한 消費量의 二二・一%에不過하다 그럼으로 世界의石油市場을 獨占하는 歐米의 當業者로서 日本을 등이하야 揮發油相場을 如何히 할수잇는 地位에잇서서 政策的으로 撥拂하게되는것을 想像하지안흐면안된다 例하면伊太利는 去番 에디오피아征伐에當하야 石油獲取를 日本에 再三要求하얏다고한다 이로써 그實의 苦衷을 察知할수잇을것이다 同國에서는 大戰中에 맛보앗다 如斯한 揮發油의 危機를 緩和하는 最良의方法은 石炭의液化及 알콜燃料 即揮發油에 에타놀(酒精)을一〇乃至三〇%混合한 燃料의 大量生產에잇슴을 論者는 主張하고잇다 그런데石炭의液化는海軍燃料廠과 滿鐵의 共同研究下에 近近半工業的으로 遂行될터이다 他方 알콜燃料는 歐米各國에서 이미實用되어 재코슬로바키아 瑞典 匈牙利等과 如한 小國의 燃料用은 全알콜消費量을 凌駕하는現狀인데도 不拘하고 日本에서 燃料用의 알콜消費量의 〇・四%로 揮發油에 代用되는 알콜量은 全揮發油消費量의 〇・〇〇三에 不過하다 最近 겨우 航空機用燃料로 注目하고잇슴에 不過하다 그런데 年額約六、〇〇〇、〇〇〇石에 相當하는 日本의 揮發油消費量의 約二〇%를 알콜로써 代用하기爲하야는 約一、二〇〇、〇〇〇石의 알콜을 要하게되는 그런데 日本產量은 約三五〇、〇〇〇石으로 此全部가 日本에서 燃料用알콜에 相當하는 約六〇%에 相當하다 即 알콜燃料는 新規의 酒精製造場을 필요로하는것은 日本現在의 全酒精工場과 同一數量이 增產하지 안흐면 안될것이라한다

깨솔린混用의 알콜製造를補助
殖產局에서研究中

燃料國策上 無水알콜의 깨솔린混用은 不遠한將來에 法律로써 强制的으로 實施될 運命에잇는데現在의 市價는 無水알콜은깨솔린의 約二倍에 該當함으로그混用에際하야서는 國庫로부터相當한額의 補助를 必要로함으로 總督府殖產局에서는 明年度豫算編成에當하야 重要國策事業의一로 無水알콜製造에對한 補助金을 計上하려고 研究를 進行하는一方 無水알콜의 製造施設은 現在의 燃料施設을 곳 轉用할수잇스나 그로는 製造費의 增大를 招來함으로 甘蔗 又는 馬鈴薯等으로부터 直接알콜을製造하는方法을 研究할必要가잇서 總督府酒精試驗所에서 그試驗을 實施할計劃을 進行하고잇서 明年度豫算에 約三萬圓의 試驗費를 要求하기로되엿다한다

對英電球移出 自治的으로統制
約一千萬個目標로輸出

對英電球輸出의 日本內地朝鮮配當折衝은 既報와如히 日本內地側의 頑迷한 態度로 決裂되엿슴으로 朝鮮에서는 當業者와 總督府協調下에 直輸出하기로 方針을 決定하얏다 그런데 對英輸出配當은 今年度 日本配當四千五百萬個로되어잇슴으로 朝鮮에서는 日本內地의 立場도 考慮하야 自治的으로 朝鮮은 朝鮮으로서 輸出統制를 實施하야 大體 이配當量의 二割强、約一千萬個를 目標로 輸出할 豫定이다

統營養鷄成績頗良

近年統營의 農家副業으로 養鷄熱이 旺盛한바 그成績이자못 良好하야 昭和十年四月一日부터 同十一年四月末日까지 統營郡農會에서 鷄卵共同販賣高의 數量은 五千八百四十餘貫이고 그價額이 一萬一千圓에 達한다는바 이로因하야 農家의 經濟는 潤澤하여진다고한다

大邱產苹果 移出頗旺盛
每日八百箱에到達

【大邱】大邱苹果는 最近에잇서서 日本內地移出이 못처 激增되어 每日八百箱以上에 達하야 二十三日現在에 五千箱을 突破하얏다고한다。

平北道서機業奬勵

平北道의 機業은 農家에 適合한 副業임으로 道產業課에서는 昨年부터 極力奬勵한 結果로 至極히 良好한 成績을보고 今後機業平北의 方策樹立에 對하야서는 集約的指導에 邁進하기로되여 不遠各郡에 適勝을 發하야 機業의 發展餘地가잇는 地方에 機業模範部落을 造成하게 되엇다

水稻種子共進會 慶南道에서開催

慶南道에서는 今年度부터 向ㄱ 米의 改良增殖에 拍車를 加하고저 水稻種子更新의 積極的奬勵를하기로되어 道農會와 協議한 結果 第一回水稻種子 更新共進會를 開催하기로決定하얏다 그리고 이共進會의 目的은 第二次 改良種子의 普及向上을 圖하며 따라서 改良種子의 交換을 勵行하는데잇다는것인바 그第一回審查는 九月下旬에 本審查는 明年二月中에 第二回審查는 種子交換의 時에 行하기로되엇다。

養蠶奬勵補助 根本的으로改革
全面的으로補助方針

從來 總督府의 養蠶奬勵補助는 桑苗에 對하야서만 補助하기로 되어잇섯는데 此補助도年年減額되여 今年度는 前年을半額七萬二千圓으로되고 明年度는 다시 半減하야 三萬六千圓으로 減額되며 明年度로서 中止하게되엿슴으로 農林局에서는 이機會에 養蠶奬勵補助方針에 根本的改革을 加하야 從來와가티 栽培桑苗에 對하야서만 補助할뿐아니라 肥培管理指導員의 充實도補助하야 栽植桑苗의 奬勵、肥培管理의 勵行指導의 徹底를 圖하야서 副業養蠶의 積極的奬勵에 進出하고저 明年度豫算에 約四十萬圓의 養蠶奬勵費를 要求하기로 되엇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代理人屆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鑛業權者	事項
一〇一六五	忠南保寧郡川北面	中原八郞	保寧郡川北面小松鍵太郞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六月二十三日屆出
八七九二	江原洪川郡乃村面	河淸一	牙山郡溫陽面項內韓吉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六月二十四日屆出
一三一〇七	全南光陽郡光陽面 骨若面	林良雄	光陽郡光陽面韓方錫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六月二十三日屆出
八六七四	平南陽德郡陽德面	全永一	鑛業代理人村山權幸을解任하고陽德郡陽德面吳熙三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六月二十五日屆出
一〇四四九	江原蔚珍郡溫井面	金龍璧	蔚珍郡溫井面金正衍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六月二十五日屆出
一一〇三三	平北江界郡干北面	岡崎英三郞	鎭南浦府三和町馬場嘉藏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六月二十五日屆出
一五二一四	同城干面、立館面	姜禧珽	江界郡城干面姜宏錄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六月十八日屆出
一三〇六六	慶北尙州郡洛東面	內外鑛業株式會社	尙州郡尙州邑高原丈夫를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六月十七日屆出
一三〇七三	同 尙州邑		
一三〇六七	同		
一三〇六八	同 外西面		
一三〇六九	同 外西面、忠州面		
一三〇七〇	同 尙州邑、外西面		
一三〇七一	同 內西面		
一三〇七二	同 青里面		

日用商品市況

二十三日 京城市의 砂糖 及麥粉市況을 보면 다음과갓다

▲砂糖 强調

砂糖은 元來 降雨時에는 一般的으로 需要가 減少됨으로市勢가 低下하는것이 普通이나 此期는 最盛需要期임으로 昨今의降雨가잇슴에도 不拘하고 需要도 減退되지안코 도리혀 增加의 傾向이어서 市勢는 强調를示하야 今日六十六斤(百斤)一俵에 對하야

白砂糖 二三、一〇

黃砂糖 二一、一〇

黑 一一、五〇

分蜜糖 一七、七〇

으로亦是先高가 豫想된다고한다

▲麥粉 弱含

麥粉은 原料新麥의 出廻遲延과減收豫想으로 高調를 示하야今日 二十二斤入 一袋의 市勢는 四圓五十錢이다 그러나 그原料新麥의 出廻가 遲延은 되엇다할지라도 八月에 드러가면出廻旺盛하여질것은 勿論 多少減收가되더라도 新麥氣分으로 麥粉市勢가 低下하리라는 觀測이다

産◇業◇短◇信

▲統營 昭和十年度 統營郡內畜牛取引狀況은 다음과갓다 入場頭數 五、二四七頭 賣買頭數 五、〇〇五頭 賣買價額 二四六、四八二圓 成牛價格 一頭最高 一六〇圓 最低二〇圓 (平均六八圓) 取引狀況은 右와如한데 前年度에 比하면 入場頭數 一七四三頭 賣買頭數 一三〇六頭 價格 一九〇、三二一圓의 減少로 그原因은 農作物多數收穫 棉作收入의 好況等에 依하야 農村의經濟狀況이 順調로나가는 關係라한다

▲春陽 去七月十八日午前十時春陽面事務所에서 酒類密造防止委員會를 開催하고 酒類密造防止策을 講究하엿다한다

問 京城府內에 滿洲事物案內書가잇습니까 알고저 願합니다 (京城 一讀者)
答 一般으로된것은 업습니다。
問 釜山、元山等地에잇는 書籍을 下敎하시오 (往文鉉 一讀者)
答 書籍販賣店은 京城府 … 三丁目 … 書店等이 잇습니다
問 特許及實用新案關係의案內指導書를 求하오니 發行所와 著者와定價를 下敎하시오 (平北龍川D讀者生)
答 東京市神田區中猿樂町 松堂發行 三宅田著 實例特許實用新案 定價五圓五十錢 東京市內 早稻田大學出版部發行 米田、高島著『特許のかぎ』定價一圓八十錢

黃昏 (142)
韓雪野 作 安夕影 畵

그뒤에오는것(六)

하루아츰 경재는 피봉에 주소성명 업는 편지 한장을 바다왓다。

글씨는 그다지 능치는못하나 남자의 필치임은 곳 알수잇섯다。

그러나 떼고보니 의외로 려순의편지엿다。지난번에 길에서우연히 그를만나지 꼭 이주일후의 일이엇다。

『무슨 편질가?』

경재는 맨먼저 이러케 생각하엿다。그는 얼마동안 편지를읽지못하고、맨끗장을 드비여주소부터 차자보앗다。그러구는아래로부터 위로 칭출라오며 걋트로 한번 죽살펴보앗다 그러케 지나처만보아도 역시 려순의 냄새가 나는것 가탯다 언문 글씨가 경재자신의 것보다훨신 능숙하다。『언문이야만해도녀자의 글이야』하고 언젠가려순에게 말한기억이 낫다。

그러나 문득 한가지 눈에걸리는것은 그의변해진 생활을말하듯、편지가 사뭇 어지럽고허전해보이는것이엇다。

못내 잘되기를 바라든사람의력라한자태를보는듯 일종애수의눈으로 그는 편지를 읽기시작하엿다。

『김선생!

요전날밤에는 미안햇습니다。그러나 물론 기뿌리해가 게시리라고 밋습니다。비록삽시에 지나지안헛고、따라서 긴말 드릴 여가가 업섯사오나 명랑해진 선생의얼골에서 재가 일죽 바라고잇든바를 차즌것 가태서 얼마 반가웟슴니다 선생의생각도 상필 저와 비슷하엿스리라고 생각함니다

저는 선생을 떠난후 물론 다시 선생을 만날 날이 잇스리라고 생각하엿고、또 제가 차자뵈일날도 잇스리라고 망으로 밋고잇섯습니다。그러나그러니만치 우연히 뜻하지안코 만나기를 저는 바라지 안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을 뵈온후、차라리 좀더 지난후에 만나뵈엿드면 하는 후회비적한 혼자생각을 하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기실은 약한것이니까요。더욱이 저가튼평범한인간은 스스로 강하여지라고하면서도 늘 그대로 되여지지안는 일이 만흐니까요……그래서 때로는 자기의몸과마음을 시간과공간으로 몰소 얽어두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기도 하엿습니다。

사실우연이란 놈은 무서운작란군입니다。저는 이작란군에게 한번 뽈 노든엿다 느낏갓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저를 만난으로해서 결코 당의 한모공(毛孔)이나마 흐리고 어느위질 선생이 아닌것을 각생각하고 저의 조고만 기우(杞憂)는 곳 해소(解消)해버렷습니다。막구어말하면 선생의 그려한태도는 선생을 구할밧아니라、나아가서 저까지구하여습니다。

선생!

긴말은 더쓰지안켓습니다。꼭 만나뵈일 생각이 잇기때문입니다。과연 선생은 저를 다시 만나주실 생각이 계신지요? 형식이나 막부득이해서가 아니라、진심으로 그를 위하다 니다。물론 저의심정을 그릇 친여시 리해해주신다면 만나주실줄 밋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그러케 무심히 가버린 네가 무슨 면목으로 만나자는거냐?』하고 꾸짓는 선생도 상상해보고、

또『웨 만나자는걸까?』하고 궁금해하시는 선생도 그려봅니다。그러니만치 미리 만날용무에대해서 상세히 말슴드리기 싶습니다만、그것은 만나는날에ㅡ선생이 와주시지안흐면 지가 차자갈것이니까 그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니 하고 혼자 생각하기도합니다。

선생!

이러케 외람히 안저서 편지 올리기가 심히 죄송한일이오나 차자가기가 더미안해서 이처럼 서면으로 실례하오니 관서해주시기를 바람니다。

다른것은 다 그만두고 라도지가 선생댁을 찾기 거북할것은 누구보다 선생이 잘리해하실줄 밋습니다。

그러라고 달리 만나뵐 기회도업고해서 생각다못하야 감히 비소로 미안한청을을 청하게되엿사오니다。

그런데 뒷주잇사오면 래명일 즉 십오일밤에 와주섯스면합니다。물론 십륙일밤에도 기다리겟습니다만……

그리고 끄트로 멀려와서 미안합니다만 현옥씨도 평안하신지요? 잘 전성(傳聲)해주시기 바람니다。

십삼일밤

김경재 선생』 바려순